

2011년 7월23일 7급 국가직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정답 & 해설

1. ③

무차별곡선이론은 효용의 주관적 측정가능성을 전제하고 소비자균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다.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다.

보기 ④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두 재화 모두 일반적인 유익재의 경우에는 옳은 설명이지만 어느 한 재화가 유해재이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문제의 서술에서 유익재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기이다.

2. ②

ㄱ과 ㄴ처럼 사람들이 현금인출을 하여 현금보유를 늘리고 또한 ㄷ처럼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줄인다면 파생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며, ㄷ처럼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량이 증가한다.

3. ④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은 비교우위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국가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지고 수입대체산업은 위축된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간 동일 상품의 가격이 균등화되며 노동풍부국은 낮았던 임금이 높아지고 자본풍부국은 높았던 임금이 낮아져 각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H-O 제2정리)

4. ①

이윤극대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야 하며 거기서 반드시 총수입(TR)이 총비용(TC)보다 커야 한다. 보기 ②처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되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손실이 극대화된다.

5. ②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는 통화량과 이자율이 있는데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다면 즉,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잡으면 투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다면 즉, 화폐수요가 불안정하다든지 금융혁신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이는 점에서 유리하다.

6. ③

적정통화량 공급방식인 $\frac{\Delta M}{M} + \frac{\Delta V}{V} = \frac{\Delta P}{P} + \frac{\Delta y}{y}$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frac{\Delta M}{M} = 3\% + 7\% - 1.5\% = 8.5\%$ 이다.

7. ②

보물-토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이론인 재고이론에 의하면 화폐수요는 소득, 물가, 거래비용 등에는 비례하고 이자율에는 반비례한다고 하면서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 이하로 증가한다고 한다.

화폐자산은 교환수단으로는 뛰어나나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열등한 자산이다.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에 의하면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 비하여 화폐유통속도 혹은 화폐수요가 안정적이어서 금융정책의 효과가 강력하다고 한다.

피셔의 교환방정식 $MV = Py$ 는 화폐의 가치저장기능을 강조하는 화폐수요이론이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물가가 직비례로 증가한다고 하면서 화폐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8. ①

이자율 기간구조란 채권의 만기와 채권이자율(수익률)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기대이론이란 장기이자율은 기대되는 미래 단기이자율의 평균이라는 가설로서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면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며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면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이란 채권수익률=기대이론+위험과 유동성포기에 대한 대가라는 것으로 미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면 당연히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며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면 기대이론에 의하면 수익률곡선은 우하향하지만 위험과 유동성포기에 대한 대가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한다고 한다.

9. ②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므로 $r = r_f + \frac{\Delta e}{e}$ 이다. 그러면 $5\% = 6\% + (-1\%)$ 로 앞으로 한국의 환율은 1% 하락한다.

그리고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므로 $\frac{\Delta P}{P} - \frac{\Delta P_f}{P_f} = \frac{\Delta e}{e}$ 이다. 그러면 $3\% - 4\% = -1\%$ 로 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4%이다.

또한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예상 물가상승률이므로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모두 2%로써 동일하다.

그런데 실질환율변화율=명목환율변화율+미국 물가상승률-한국 물가상승률이므로 실질환율변화율= $-1\% + 4\% - 3\% = 0\%$ 이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10. ①

먼저 시장균형점을 구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함수를 연립계산하면 $3P = 210$, $P = 70$, $Q = 140$ 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 \cdot \frac{70}{140} = 0.5$ 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 \cdot \frac{70}{140} = 1$ 이다.

11. ①

두 재화간의 교차(간접)탄력성이 음(-)이면 두 재화는 보완재관계이고 양(+)이면 대체재관계이다.

12. ③

적응적 기대학파인 프리드만-펠프스의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인 확장 재정, 금융정책을 펼치면 단기에는 국민들의 화폐착각에 의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나 장기에는 국민들의 기대행동에 의해 실업률은 원래의 자연실업률수준으로 복귀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선이라고 한다.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 혹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우하향곡선이며, 필립스곡선의 형태는 총공급곡선의 형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여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필립스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13. ②

평균수입함수는 곧 가격(수요)함수이다. 그래서 한계수입은 $MR = 60 - 6Q$ 이고, 한계비용은 총비용함수를 미분하면 $MC = 2Q - 4$ 이다. 그래서 이윤극대화조건에 따라 $MR = MC$ 하면 $60 - 6Q = 2Q - 4$, $8Q = 64$, $Q = 8$ 이다.

14. ③

수요곡선이 $P = 6 - 3Q$ 이므로 $MR = 6 - 6Q$ 이다. 이때 한계수입이 0일 때의 $Q = 1$ 이고 $P = 3$ 이므로 총수입 $P \times Q = 3$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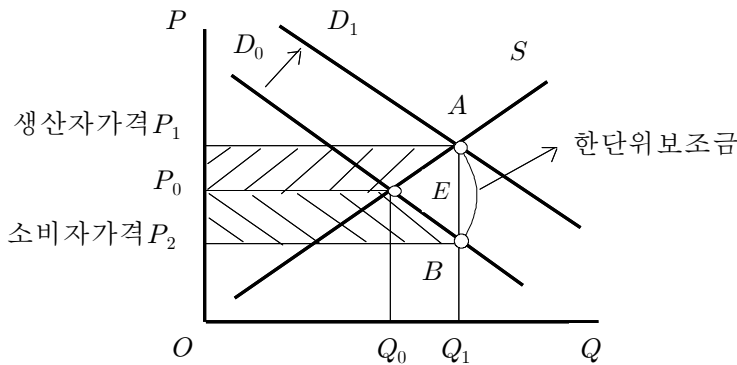
15.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varepsilon_d = \frac{\frac{\Delta Q}{Q}}{\frac{\Delta P}{P}}$ 이다. 그래서 $0.4 = \frac{20\% \downarrow}{50\% \uparrow}$ 이므로 담배소비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50% 인상시켜야 한다. 그러면 원래의 담배가격이 2,000원이었으므로 담배가격의 적정인상분은 1,000원이다.

16. ③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아래 그림처럼 수요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사각형 P_0P_1AE 만큼 증가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므로 소비자잉여도 사각형 P_0P_2BE 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입은 감소하며 총 사회적 후생은 삼각형 AEB 만큼 감소한다. 즉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총보조금은 사각형 P_1P_2BA 만큼인데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합한 것은 오각형 P_1P_2BEA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17. 정답없음(발표가답 ④)

마을 공원의 나무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수요는 개별수요를 종축 ($P = MB$ 축)으로 합산한다. 그래서 개인의 수요함수 $P = 10 - Q$ 를 주민 200명에 대하여 종축으로 합산하면 $P_M = 2,000 - 200Q$ 가 되고 한계비용 $MC = 200$ 이므로 최적 나무의 수량은 $2,000 - 200Q = 200$, $200Q = 1,800$, $Q = 9$ 그루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수요가 진정하게 표출되었다면 마을 주민 1명의 나무 한 그루에 대한 가격은 1원이고 총 9그루이므로 주민 1명이 부담하는 총부담액은 9원이다. 그러면 마을 주민이 총 200명이므로 마을 전체 주민의 부담액은 1,800원으로 나무 9그루를 심는 총비용인 1,800원 ($200\text{원} \times 9\text{그루}$)과 일치하여 재정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필요가 없다.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무임승차를 하여 아무도 나무가 필요없다고 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최적량인 나무 9그루를 심으려면 1,800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18. ④

먼델-플레밍모형의 결과는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금융정책이 소득변화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일국의 정치혼란이나 소요사태, IMF위기 등으로 위험할증이 증가하면 먼델-플레밍모형에 의하면 국내이자율이 위험할증만큼 증가하여 투자가 축소되겠지만 이자율상승으로 화폐수요가 감소하여 파생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순수출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먼델-플레밍모형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화폐수요를 증가시켜 실질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이자율상승에 의한 투자의 축소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1997년 IMF위기상황을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보기 ③의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금융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변동환율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은 소득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먼델-플레밍모형에서는 재정정책도 효과는 미약하지만 소득변화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19. ④

MBA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소득은 청,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적고 중장년기에는 많으나 소비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이므로 청,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를 하고 중장년기에는 저축을 많이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처분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청, 유년기나 노년기인지 중장년기인지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서로 다르다.

20. ①

소비자에게 타이어 1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아래 그림처럼 수요곡선이 하방으로 10원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부과 후 시장가격 즉, 생산자가 수취해 가는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일단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모두 P 축으로 정리하면 수요함수는 $P = -Q + 700$ 이고 공급함수는

$$P = \frac{1}{4}Q - 50 \text{ 이 된다.}$$

이때 세금부과 후 수요함수는 기존의 수요함수를 세로축(P 축) 절편만 단위당 세금 10원만큼 감소시키면 되므로 세금부과 후 수요함수는 $P' = -Q + 700 - 10(Tax)$ 즉, $P' = -Q + 690$ 이다.

이제 이것을 공급함수와 연립계산하면 $\frac{1}{4}Q - 50 = -Q + 690$, $\frac{5}{4}Q = 740$, $Q = 592$, $P = 98$ 이다. 이 98원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며 여기에 단위당 세금 10원을 더한 108원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다.

